

##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16-21

사랑이란 상대방의 최대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최대의 희생을 감당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대의 유익인 영생을 위하여 자신의 최대의 희생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 I.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16절 말씀을 읽어 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에서 “세상”이라는 말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 보자. “하나님이 안병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깊이 깨달을 때 나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요한 웨슬러가 미국 선교를 2년 마치고 매우 실망스러운 가운데 영국으로 돌아오다가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났다. 그야 말로 배가 파선 되어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요한 웨슬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이 요한 웨슬러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너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느냐?” 요한 웨슬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물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가 된 것을 믿느냐?” 그러자 요한 웨슬러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영국에 돌아와 어떤 집회에서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가 된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큰 능력으로 부패한 영국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나 안병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될 때, 나의 존재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된다. 천지를 지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의 삶은 자존감이 넘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 II.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본문 3:16절에 답이 있다.

### 1.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악 된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만한 자, 하나님을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한다. 이 사랑은 차별이 없다. 이 사랑은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말해 지고 약속되고 적용 된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딤후 2:4)

### 2.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여 그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실 만큼 친절하고 강열하고 위대한 사랑이다(요10:17-18). 하나님의 사랑은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 주신 사랑이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유익을 준 사랑이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사랑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한다. 십자가는 죄 때문에 마땅히 형벌 받아야할 형벌이 통제로 면제 된 것이다.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릴 진리가 아니라 일생 동안을 묵상하고 깨닫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야할 진리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흘리심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씻어진 것이다. 히브리서 10: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하는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 유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된다.

### 3.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다(16)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18).

주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가장 귀한 열쇠이다. 믿음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믿음을 갖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죄를 슬퍼 하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구원이 없다. 오직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어떤 악한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만이 온전한 구원을 가져온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을 누릴 수 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항상 거룩한 사람이다. 참된 믿음은 항상 경건한 삶을 동반한다.

### Ⅲ.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면 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가?

18절에서 설명한다. 사실상 비록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그들은 그와 같은 조건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가 심판을 받았다면 전적의 그 자신의 책임이다. 인간의 멸망은 자기가 심은 열매이다.

#### 1. 빛으로서 오신 예수님

빛이 세상에 왔다고 했다. 빛은 물론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일 주신 바 된 사람이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 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요 곧 생명이다”(요 8:12; 14:6)고 말씀 하셨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다(1:4).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진리의 총합이란 뜻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6)이라고 말씀 하셨다.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합되어 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저 있다(골2:3). 만약에 당신이 무엇을 참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예수님과 연관 지어서 알아야 한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지어졌다(골 1:16). 그래서 그는 모든 만물의 목적이다. 만물의 기원이다. 그래서 만물의 의미는 그 안에 있다.

그가 오실 때 만물에 대한 진리가 오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우리에게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진리, 선과 아름다움의 진리, 악과 추함의 진리,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의 진리, 바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해야 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정의 되고 측정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이다.

#### 2.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이 말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와 빛을 미워 하는 자의 차이와 같다.

16-18절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두 종류의 차이를 말했다.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19-21절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의 차이는 빛을 사랑하는 자와 빛을 미워하는 자의 차이이다.

빛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을 미워 하는 자는 어둠을 사랑하는 자이다. 악을 행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빛되신 예수

님께 나오지 않는 자이다. 그 결과는 심판이다.

빛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21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을 사랑하는 자는 빛되신 예수님께 나온자이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거절하시지 않고 영접하신다. 하나님은 빛을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영접할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나 빛을 영접하지 않고 어둠을 택한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 영원한 비극을 초래하는 결과는 스스로 택한 결과이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빛을 보내셨지만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택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선택의 결과이다. 요한복음 5: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세상을,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사랑하신 것이다. 아무리 귀한 선물로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 선물이 귀한 줄을 모른다면 그 선물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13:44-46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살 만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살만큼 천국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 귀한 천국을 사는 방법은 오직 믿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예수님을 택한 것이 믿음이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체 하지 말고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계속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 증거로 믿음의 열매를 보여 주어야한다. 말로만 믿지 말고 온마음을 쏟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유익을 자기 소유로 삼아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획기적인 변화의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를 보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